

전남도, 2024년 신재생에너지 메카 자리매김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글로벌 RE100 기업 유치 등 기반

전남도가 '1조4000억원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 구축 사업 착공', '직류산업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및 국비 1000억원 확보' 등의 성과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확실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10대 성과'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 ▲정정수소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1호 전남해상풍력단지(100MW급) 준공 ▲산이-마산 영농형 태양광 농식품부 계획 반영 및 솔라시도 154kV 전력인프라 확충 ▲국내 최초 메가와트(MW)급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등을 선정했다. 이어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마련 ▲나주 직류산업 혁신특구 지정 ▲70kV 신송전

망 연구개발(R&D)과제 확보 ▲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국비 32억 원) 선정 ▲전남도-클라임 그룹 기후대응 협의체 MOU 등을 꼽았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은 여수광양반도에 총 1조4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으로,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중 최대 규모이자 기회발전특구 중 전국 최초 착공 사례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원 수입이 총 1000억원에 달해 지방소멸 극복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 묘도에 지정된 정정수소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총 3조9000억원)는 5조69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여수광양반편 탄소중립 전환의 획기

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강점을 활용, 신안 자은도 일원에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100MW급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감으로써 해상풍력지역 잠재량 국내 1위인 전남이 아예 해상풍력 메카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의 3년여 노력으로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을 공급할 1조 원 규모 산이-마산 영농형태양광사업이 전국 최초로 농식품부 계획에 반영됐다.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100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154kV 변전소 등 전력인프라를 위한 한전과의 협약도 체결돼 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최초로 3MW 규모의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사업이 영광 월평마을에서 착공, 농촌소멸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농업과

에너지산업이 융합·상생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마련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전력망 입지 선정 단계부터 계통 포화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남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혁신산단 일원이 중기부 직류(DC)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비 1000억원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정부 계획에 70kV 신규 송전전력망사업이 반영돼 50조 원 규모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이 기대된다. 전남 최초로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100% 국비(32억원)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돼 키르기스탄에

전력순실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글로벌 기후대응 네트워크인 클라임잇그룹(Climate Group)과 전세계 1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대응 협의체(Under2)에 가입함으로써 도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4년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200만 도민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에너지 전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토대로 2025년 계통포화 문제 해소, 본산특구 선정, 전라남특별자치도법 제정 등을 반드시 성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과 전력다소비 첨단기업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다사다난 2024' 보내고 '희망의 2025' 맞이하자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KIA 타이거즈 우승,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지역민을 기쁘게 했던 소식도 있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어두운 도심을 밝히는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기운이 넘쳐나길 기원해 본다. 광주시 북구 각하동 아파트에서 바라본 해질녘 풍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대·도립대 통합 신청서 제출

국립 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폐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지난 27일 국립목포대와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 26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제 5차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열고 통

·폐합 신청서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각 대학별 내부 심의 과정도 진행했다.

두 대학은 지난 1월 대학통합합의를 체결한 이래 1년 여 만에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 합의(7월)에 이어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경 사항 논의를 거쳐 통·폐합 신청서를 하게 됐다.

신청서에는 ▲통·폐합 목적 및 특성화 계획 ▲대학

별 발전계획 ▲통·폐합 후 대학운영 체제 개편 계획 ▲교육 여건개선 ▲연차별 소요예산 ▲양 대학 통합 후 학생 및 교직원 보호 조치계획 등이 담겼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해 국내 최초로 2·4학제 통합국립대로 발돋움한다. 또 목포대의 목포, 목포, 영암, 나주 등 5개 캠퍼스와 전남도립대의 담양, 장흥 캠퍼스 등 7개의 캠퍼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청년 문화예술과 창업의 중심대학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산 유자 음료 30만 병 중국 간다

전남농기원 개발... 지역 기업에 기술이전·협력 성과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직접 개발해 지역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유자음료 3종 총 30만병(1억 8480만원 상당)의 유자음료가 최근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수출 유자음료는 전남지역 특산물인 유자, 녹차, 비파와 함께 해삼, 홍합, 굴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원료를 혼합해 개발됐다.

제품은 유자해삼드링크, 유자녹차홍합드링크, 유자비파굴드링크, 3가지 맛으로 구성됐으며, 중국 청도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유자음료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 녹차, 비파 소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음료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고품질 엔지니어링(유자해삼드링크), 보성 강산농원(유)

업회사법인(유자녹차홍합드링크), 완도 다시마전복수산영양조합법인(유자비파굴드링크)이 생산했다.

김주호 고흥 엔자임팜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과 JHE글로벌의 협력 덕분에 유자해삼드링크의 중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확대해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지역 농식품업체와 협력해 수출급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확대해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이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2025년 남도학숙 입사생 모집

내달 2~16일 725명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 남도학숙이 내년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30일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 사·도별 선발 인원은 광주 362명, 전남 361명이다. 장애인 2명은 사·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종별로는 제1남도학숙 동작관(동작구 소재) 423명, 제2남도학숙 은평관(은평구 소재) 302명이며, 희망하는 곳을 선택·지원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12월 30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 또는 전남이면서, 서울·인천·경기지역 내년 신입생이나 재(복)학 중인 학(원)생이 된다. 신입생은 대학명이 표기된 수험표, 합격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중 1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원서는 모집 기간에 맞춰 남도학숙 입사지원 누리집((https://ndhsdormitory.saramin.co.kr)을 통해 접수하거나, 보호자 주민등록지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 시·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입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활 정도를 100% 반영하며, 재학생은 학교 성적 30%, 생활 정도 70%를 반영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등은 가점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 광주시·전남도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 가점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2자녀 가구 3점, 3자녀 이상 가구 5점으로 구분해 가점을 부여한다.

입사대상자와 예비자 순위는 내년 2월 4일 남도학숙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3월부터 입사비 10만원, 월 1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흥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